

開 會 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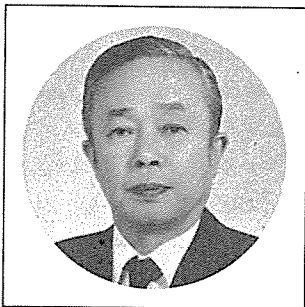
李祥義 科學技術處장관님을 비롯한 科學技術界 元老, 先輩, 代議員 그리고 來賓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제24회 定期總會를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고 感謝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햇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與件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振興과 暢達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묵묵히 所任을 다하여 주신 우리 科學技術人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

科學入國·技術自立의 共感帶이룩

”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聯合會는 國家社會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속에 지난 1966년 創立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科學技術의 暢達과 振興을 위하여 일익을 담당하여 오면서 71개 단체로 출발하여 오늘 221개 단체를 갖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科學技術人의 總合體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朴 泰 源
(科總 회장)

아울러 우리 科總은 創立이래 20년동안 100만 科學技術人의 구심체로써 國家發展을 뒷바침할 수 있는 科學技術政策의 개발과 활성화등 본 聯合會의 設立目的에 부응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대적 제약과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쉬지않고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제6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政治, 社會的 환경이 과거의 權威主義的 체제로부터 民主的 체제로 바뀌어 감에 따라 우리는 변모되어 가는 社會發展에 적응하면서 특히 2000년대에는 기필코 先進 福祉社會를 구현하여야

한다는 國民的 염원에 부응하여 우리의 科學技術政策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그 推進方向을 제시해야할 時點에 이르렀음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科學技術人의 總本山인 科總의 位相을 재정립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科學技術을 선도할 수 있는 능동적인 역할을 추구하기 위하여 “2000년대 福祉社會具現을 위한 科總의 역할과 사명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우리 모두가 다함께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이렇듯 지난 한해동안 社會 各界의 변화와 발전속에서 우리 科學技術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相互協力の 자세로 이를 이겨 내면서 특히, 産·學·研의 조화있는 모색을 통하여 學會學術活動이 활성화되고 研究能力이 先進水準으로 함양된 것은 오직 科學技術人 여러분의 각고의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밖에 우리 聯合會로서는 學會學術活動 支援을 확대한다든가, 우리 百萬科學技術人의 宿願事業인 科學技術振興센터의 垆地買入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科學技術政策 立案과 관련하여 行政府, 立法府등과의 긴밀한 유대를 갖고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진흥과 科學技術人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미진함과 한조각의 미련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政府機關이나 國民 各界에 얼마나 알려지고 호응을 얻었나를 깊이 성찰하여야 하겠습니다.

尊敬하는 科學技術人 여러분.

서기 2000년대가 불과 10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國民은 世紀의 大變換을 앞두고 매우 큰 꿈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이후 온갖 인내와 각고를 겪으면서 그동안 이룩해 놓은 경제발전과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民主化 過程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이르러 經濟, 社會, 文化 各 부문에 걸쳐 先進水準의 福祉社會로 진입하고자 하는 염원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기 2000년대가 불과 10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國民은 世紀의 大變換을 앞두고 매우 큰 꿈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이후 온갖 인내와 각고를 겪으면서 그동안 이룩해 놓은 경제발전과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民主化 過程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이르러 經濟, 社會, 文化 各 부문에 걸쳐 先進水準의 福祉社會로 진입하고자 하는 염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科學技術의 革新과 도약만이 최상의 관건이 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科學技術 發展을 위한 國際與件은 날로 어려워만 가고 있습니다. 保護貿易主義의 강화와 더불어 製品開發에 관련이 되는 기술의 유출은 통제되어 있고 特許權, 著作權 등 知的所有權 보호의 강화로 인하여, 基礎科學의 지식마저 습득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결국 앞으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 科學技術發展을 이룩해야 한다는 외로운 現實에 直面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國家의 次元에서의 最優先 科學技術 振興施策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때 學會學術活動과 大學의 기초연구지원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만 할것으로 믿으면서 앞으로 本人은 여러분과함께 힘을 합하여 이와같은 우리의 소망이 성사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 밝혀 두고자 합니다.

한편, 오늘날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國際化 趨勢에 부응하여 學術情報의 교류와 기술협력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문이므로 聯合會의 國際協力 활동을 강화하여 先進圈은 물론 東歐및 共產圈과의 학문적 교류 확대에도 우리 聯合會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科總이 해나가야할 중요한 역할중에 하나는 科學技術 優位의 풍토를 조성하는

科學技術 發展을 위한 國際與件은 날로 어려워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 科學技術發展을 이룩해야 한다는 외로운 現實에 直面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國家的 次元에서의 最優先 科學技術 振興施策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學會 學術活動과 大學의 기초연구지원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科學技術의 중요성과 科學技術 도약의 필요성이 설정된다면 마땅히 關係要路에 科學技術人이 두루 등용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科學技術人의 권익이 신장되고 사기가 진작되어 연구는 물론 말은 분야에서 더욱 정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科總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科學立國과 技術自立的 艱박성에 관한 온 國民의 共感帶가 형성되고 靑少年期부터 창조적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國民科學化運動의 효율적인 추진방안도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科學技術 優位の 풍토가 조성되어지기를 피동적으로 기다릴 것만이 아니라 우리 科學技術人들 스스로가 自己啓發에 힘쓰고 國家科學技術 발전에 헌신하면서 봉사정신을 갖고 政府各部處와 國會를 비롯한 각 분야는 물론 全國民에 대하여 우리 하나 하나가 弘報要員임을 자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優位風土가 조성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科總의 지나온 발자취와 重點의으로 추진 해야할 여러가지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結論의으로 말씀드리려 올해에도 우리 科總은 ▲科學技術政策의 開發 ▲學會 學術活動 育成을 위한 支援 ▲科學技術情報交流 및 國際協力事業 ▲科學技術 風土造成 및 科學技術人의 權益伸張 등에 會員여러분의 노력을 모아 더욱 헌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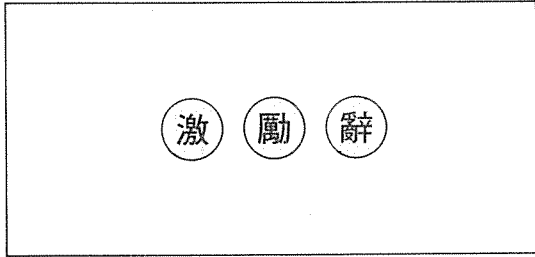
이러한 우리의 目標은 科學技術의 主體로서

우리 會員이 어느정도 일치단결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科總이 財政의으로 自立을 이루고 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뒷받침될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보기때문에 올해에는 科學技術振興센터의 건립 계획을 마무리 짓고 현재의 기구를 포함한 조직을 보완하여 100만 科學技術人의 代表性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學問의인 권위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專門性을 추구함과 동시에 科學技術界 뿐만아니라 社會 각 분야와 관련된 사안에 관한 批判能力을 보유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善意的 壓力團體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위상과 방향을 재정립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믿으면서 필요하다면 이에대한 政府의 이해와 지원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또한 이것은 科總의 활동과 기능이 강화되어 國民과 社會 각분야에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것이 可視化될때 진정한 의미의 自立이 이룩될수 있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科學技術 發展을 위하여 科總이 공헌할 수 있고 또한 추구하여야할 방안에 대하여서는 會員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科總長期發展計劃에 반영하고 추진하여 나갈것을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1989년의 새해사업을 확정짓는 뜻깊은 이자리에서 우리 모든 科學技術人들은 스스로가 國家發展의 향도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다듬고 國家와 民族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통감하면서 모든 國民의 의식속에 창조와 능률 그리고 合理的 精神이 심어지고 과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기능인이 대우받는 풍토가 이룩되도록 다같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科學技術處를 비롯한 關係當局과 관련기관 그리고 산업계, 언론계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원로, 선배, 동료 그리고 代議員 여러분의 건강과 家庭에 항상 萬福이 깃드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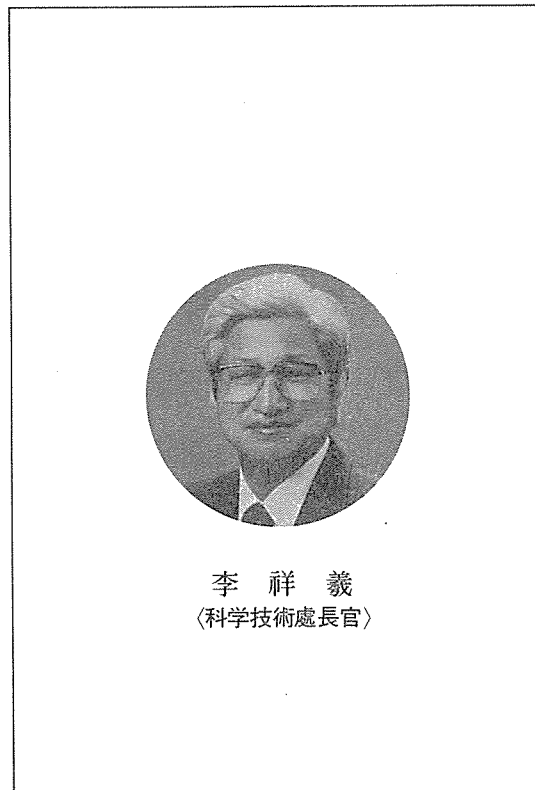
존경하는 朴泰源 회장님, 그리고 科學技術界 元老, 先輩님들을 비롯 科學技術 가족들이 자리를 함께한 뜻깊은 자리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우리의 科學技術에 관한 인식이 저 사하라사막과 비슷할 정도로 황량했던 시점에서 출발하여 지난 20년간

“

基礎科學육성의 元年삼아

”



우리 과학기술인들을 결집시키고 또 과학기술계의 여러 애로를 정책에 반영시키는데 줄기찬 노력을 경주해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격려의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科學技術人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노력해 왔던 것도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였다고 하겠읍니다.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의 歷史는 어떻게 보면 오늘의 우리 경제발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원동력이었고, 발자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科學技術界 원로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元老, 先輩여러분.

주지하는 바와같이 人間이 결국 歷史를 逆해서 는 결코 盛하지 못하고 歷史에 順해서 盛한다고 합니다.

500년전의 저 「스페인」은 이 지구 영토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위세가 등등했으나 바로 18세기 이 지구상에 도도히 일어나고 있던 産業革命이란 커다란 물결에 順하지 못해서

결국은 몰락하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日本은 東洋에서 유일하게 「西歐」의 그 産業革命 이후 技術文明을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고 明治維新을 단행하여 받아들였던 결과 오늘의 先進經濟大國으로 성장했다고 봅니다.

1900년대에 들어서만 보더라도 1960년대 필리핀은 우리가 GNP 겨우 100불이었을 때 우리보다 무려 7배가 많은 GNP 700불로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아시아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科學技術이라는 것을 외면하고 갈등과 방황 속에 政治的 民主化만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GNP 3,000불대를 넘어섰는데도 이 필리핀은 1,000불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65년도에 알젠틴은 GNP가 무려 12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젠틴이 곧장 美國을 따라 잡을 것이라고 예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알젠틴도 自由·平等만을 외쳤을 뿐 科學기술을 외면했고, 창조적인 국민에너지를 외면했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가 100%가 넘는 경제적으로 심한 중풍에 걸려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산업혁명으로부터 지금까지 중요시 되고 있는 科學기술이 국가발전의 정수가 되고 핵이 되기 때문에 오직 科學기술의 발전을 위해 정진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더우기 제3의 사회, 정보화사회, 기술·두뇌사회, 기술경쟁, 두뇌경쟁, 지적소유권전쟁 등의 단어로 점철되고 있는 오늘의 사회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科學기술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3高현상이라 일컬어 지고 있는 黃金引上「붐」, 국민의 福祉欲求「붐」, 원貨切上「붐」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의 중소기업은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技術개발 외에는 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야 말로 이 나라가 좌절하느냐, 아니면 도약하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科學기술에 달려있다고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에 계신 우리 科學기술인 가족은 오늘의 우리 경제를 일으켰던 가장 선구적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갖는 總會모임은 어떻게 보면 오늘의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가야될 역사적 방향을 생각하는 엄숙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자리에 오기 몇시간 전에 1991년도 國際博覽會 관계 발기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설립추진위원회 명단에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당연직 理事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定款審議때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당연직 理事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여 그것이 채택되었습니다.

사실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순수한 압력단체로서 국회와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발전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제3의 사회, 정보화사회, 기술·두뇌사회, 기술경쟁, 두뇌경쟁, 지적소유권전쟁 등의 단어로 점철되고 있는 오늘의 사회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科學기술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 말로 이 나라가 좌절하느냐, 아니면 도약하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科學기술에 달려있다고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에 계신 우리 科學기술인 가족은 오늘의 우리 경제를 일으켰던 가장 선구적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술보호장벽을 극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선도적역할을 하는데 科學技術處에서는 응당의 뒷받침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그동안 과학기술센터 건립을 위한 미구입 부지의 문제를 비롯,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의 해결은 물론 국민연구공동체, 국제연구공동체로 발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政策의 産室, 政治의 구심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基礎科學育成法을 제정하는데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모체가 되어 산과적인 역할도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기초과학조차도 그 연구부분을 물질특허권 비슷하게 보호하고 있는 경향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의 기술을 적당히 도입하고, 모방하여 개선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科學技術의 발전을 위해 基礎研究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관점에서 科技處에서는 금년을 基礎科學육성의 元年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韓國科學技術團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첫째,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科學技術界의 여론은 물론 國民的 합의와 여론을 수렴하여 국회 및 정부의 科學技術政策과 法案의 立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압력단체로서의 역할도 해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産學研을 엮어가는 구심체 역할을 담당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국민연구공동체를 형성해서 국제연구공동체라는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볼 때, 그 제1단계로서 산업계·학계·연구소가 일체가 되어 共同研究를 해야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산·학·연을 협동체로 엮어가는 구심체적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셋째,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科學技術의 國際共同研究를 비롯 國際協力 및 交流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基礎科學 育成을 위해서는 基礎研究부문은 國際共同研究를 통해서 특허권에 대한 최소한도의 지분을 확보해야될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제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술보호장벽을 극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科學技術處에서는 응당의 뒷받침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그동안 과학기술센터 건립을 위한 미구입 부지의 문제를 비롯,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民間主導的 經濟발전은 물론 국민연구공동체, 국제연구공동체로 발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政策의 産室, 政治의 구심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오늘 차기회장의 선출에 있어서는 어느때 보다도 가장 자주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방법과 가장 모범적인 과정으로 선출하여 술선수범의 모델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계신 우리 科學技術인들이 오늘 총회를 통해서 韓國의 도약하는 정치, 또 과학기술행정의 발전에 하나의 시범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